

# 제184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4.10.29



# 발전노동자

- 민주노조 사수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임금체계개악 저지
- 성과연봉제 저지
- 해고자 원직복직

## 법원,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1일 반쪽짜리 복수노조 시행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노동탄압과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공기기업중에는 특히 발전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어용 세력들을 규합하여 기업 별노조 설립에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온갖 편법/불법이 난무해도 검찰과 노동부는 이를 용인하거나 외면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일들의 배후에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발전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곳은 동서발전이었다. 출세에 눈 먼 사장과 몇몇 간부들의 꾀춤에, 많은 조합원들이 자괴감을 품은 채 발전노조를 떠났고,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과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조합원들은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상처와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조합원을 업신여기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발전노조의 원칙이다. 그래서 발전노조는 2012년 12월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주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 10개월이라는 긴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 등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고 발전노조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최근 몇몇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발전노조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5340 판결문 일부 인용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이○구는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의 투표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이 가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②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들을 독려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관계기관 실무담당자와의 접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할 경우 원거리 소재 발전소로의 이동 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중용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준, 박○창은 피고 회사의노무관리 실무담당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이○구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와 피고 이○구의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박○준, 박○창의 행위는 피고 회사와 피고 이길구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서 피고 회사, 피고 이○구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이○구, 박○준, 박○창은 민법 제760조 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남부/남동본부, 성과급균등분배투쟁 성공적 마무리

언제부터인가 발전 현장은 경영평가, 내부평가, 개별평가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실적 포장에 동원되는 간부와 관리직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현장은 부족인력과 공기단축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설비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성과급 차등지급의 점진적인 확대는 상사의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식 조직문화를 만연케 하고 있으며, 동료들 경쟁자이자 적으로 만들고 있다.

안전한 발전현장,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발전노조는 잘못된 평가제도와 임금 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실천투쟁으로 지난 4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본부별 성과급균등분배투쟁>을 결의했다.

9월 25일 급여 입금과 동시에 진행된 성과급균등분배투쟁에 남부 100%, 남동 97%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발전노조의 성과급균등분배투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 44주년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

11월 8일 전야제 /여의도문화마당 / 19시  
11월 9일 14시서울도심행진 / 16시본대회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



**민주노총**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는 최초의 직선제를 성공시켜 조합원 모두가 민주노총의 주인이 되는 조직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전태일 열사는 물론 세월호 등 죽은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생명'과 '노동의 존엄, 안전'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세워 투쟁하자는 의미입니다.

## [영화 소개] 카트

온갖 컴플레인과 잔소리에도 꺾이지 않는 얼굴로 일하는 '더 마트'의 직원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게 된다. "회사가 잘 되면 저희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해고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눈 앞에 둔 선희(염정아)를 비롯, 싱글맘 헤미(문정희), 청소원 순례(김영애), 순박한 아줌마 옥순(황정민), 88만원 세대 미진(천우희)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노조의 '노'자도 모르고 살았던 그녀들이 용기를 내어 서로 힘을 합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의 뜨거운 싸움이 시작된다! <11월 13일 개봉 예정>

